

부채와 희생제의 관점에서 본 기본 소득의 상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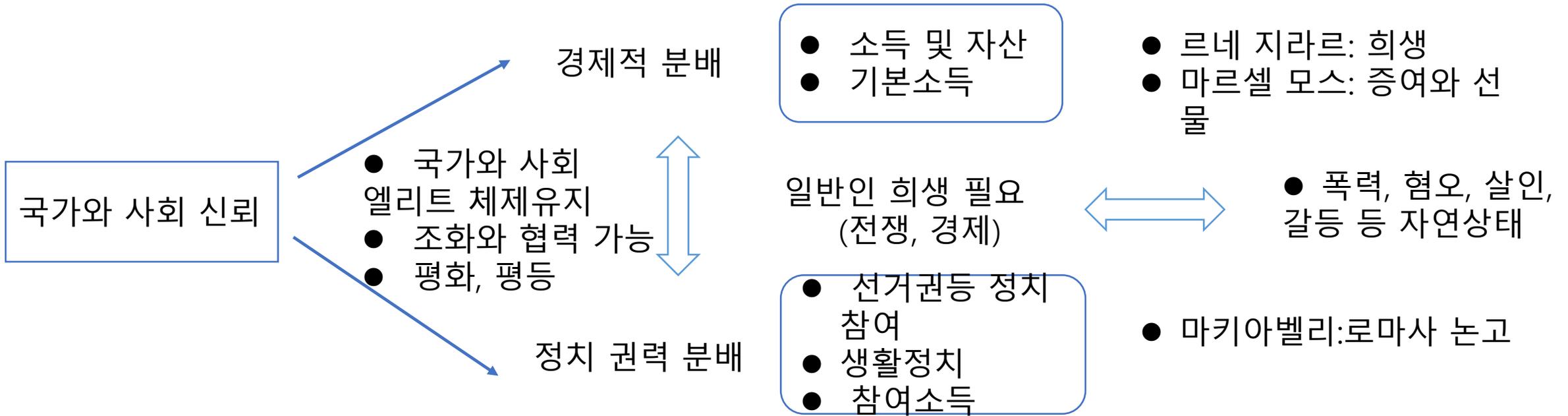
이상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년 8월 26일

차 례

1. 기본소득과 도덕적 딜레마
-수치심 극복
2. 상호주의 다양한 논의들
-페어플레이, 사회적 기여, 희생제의
3. 증여론과 기본소득
-증여, 선물, 부채, -지위인정과 증여, -네 번째 의무와 우위 관계
4. 희생제의의 재해석
-희생제의와 폭력, -과거, 현재의 희생제의
-경제사회적 관점의 희생제의 해석, -자연상태와 희생제의
-신뢰, 새로운 사회계약
5. 새로운 상호주의, 신뢰



1. 기본소득과 도덕적 딜레마

◆ 기본소득의 논의 확장과 실천 행위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노동의 상호성 규범

◆ 윤리적 또는 도덕적 딜레마 발생

-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내지 못하고 타인의 힘을 빌린다는 수치심

- 로크리안 소유규칙, 공동체의 협동이익을 얻고자 하는 무임승차 비난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여가의 중요성 강조

- 무노동에 대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만 비난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

- 가사노동 중요성,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으로 부자들이 지위를 얻음, 무보수 사회적 기여 노동 중요성 강조

◆ 그럼에도 여전히 노동의 상호주의(reciprocity)에 대한 담론은 강함

◆ 이는 상호주의를 개인간의 노동력 문제로 바라보고, 국가와 국민간, 집단간 집단간 부채와 신뢰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임.

◆ 국가와 사회 체제 유지라는 관점에서 상호주의를 파악할 필요성 있음

1. 기본소득과 도덕적 딜레마

- ◆ 18 세기 계몽주의 -봉건시대 귀속주의에서 벗어나고자 재능 경쟁에 밀린 낙오자들의 운명을 무시
- ◆ 자유주의자들 중심으로 교황과 같은 성인에 의존하는 것 보다 노동하는 성인을 존중
 - 루터, 칼뱅주의는 노동 윤리를 받아들이면서 일대일, 즉자적 상호주의를 강조
 - 중세 봉건 경제의 상호의존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 의존만 남겨놓아 일하지 않거나 성실하고 근면성을 보이지 않는 개인은 양심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림
- ◆ 좌파 자유주의 혹은 과거 마르크스 주의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음
 - 레닌은 오늘날 작업장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테일러리즘을 생산성을 위한 제도로 신봉
 -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수 없다”라는 사회주의 원칙이 이미 실현되었으며, 동등한 양의 노동에 따른 동등한 양의 생산물 이라는 사회주의 원칙도 이미 실현되었다고 선언

1. 기본소득과 도덕적 딜레마

- ◆ 대처주의가 득세하고 소련과 동구공산권 몰락으로 제3의 물결이 몰아칠 때 유럽 좌파와 한국의 좌파들도 개인의 능력이라는 계몽주의 도그마에 빠져 숙련지향 기술진보를 표방하여 실업을 개인의 능력문제로 취급
 - 노동과 능력주의에서는 진보와 보수는 큰 차이 없음
- ◆ 상호주의에 대한 관점과 개념을 바꿀 필요
 - 상호주의 (호혜성)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대응은 탈노동의 지향보다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책무와 의무, 사회적 기여 그리고 희생이 어떻게 상호주의적 행위로 작동하는지 규명
- ◆ 모든 실업자, 저임금 노동자는 경제 정책의 희생자 라는 관점에서 접근

1. 기본소득과 도덕적 딜레마

	책무	의무	사회적 기여	희생
은유	노동	기부, 자선	헌신	양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자적, 단기적 -교환거래 -대칭적 -관계단절 -공리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가성 없음 -도덕적 -국방,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타주의 -국방 -시민운동 -사회적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희생자에게 부채를 안김 -비가시적, 관계유지 -암묵적 강요 -통합, -사회적 부채 -비대칭적 -반공리주의

2. 상호주의 다양한 논의들

가. 페어플레이와 상호주의-교환적 즉자적 상호주의

◆ **롤스** . 책무는 “정의로운 제도하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협동체에 가담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이러한 제한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것을 따름으로써 이익을 보는 다른 사람들 편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에 따를 것을 주장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

- 한마디로 ‘나도 따를 테니 너도 따르라’

◆ **H.L.A. Hart**. “ 다수의 사람이 규칙에 따라 어떤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고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때, 이러한 제한에 예속된 사람들은 예속에 의해 이득을 얻은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복종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법적 권리와 의무의 체계를 생성하는 상황에서 규칙을 따라야(to obey) 하는 도덕적 책무 (moral obligation)는 사회의 협력 구성원의 협력에 기인하고, 그들은 순종에 따른 상대적인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동의의 문제제기: Arneson, Nozic 등)

-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와 상충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제한이라는 강요를 합법화시키는 장치。

2. 상호주의 다양한 논의들

나. 사회적 기여와 상호주의

◆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moral obligation)가 의무

-의무에는 옳음과 좋음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회적 기여(봉사, 헌신 등)

◆ 자신의 경제적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빈민과 아픈 사람,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지 못한 피해자들을 돌보아 주거나 지원하는 행위도 도덕적 의무를 실천

◆ 이러한 의무가 가리키는 한 꼭지점은 바로 사회 구성원을 빠짐없이 챙기고자 하는 사회적 기여이며 상호주의의 실천, 즉 상호의존성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은 내가 기여한 몫 보다 어떨 때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받을 수도 있음.

-기여한 만큼 응분의 몫을 받는 일대일, 즉시적, 교환적 성격의 상호주의는 아님.

2. 상호주의 다양한 논의들

다. 희생과 상호주의

◆오늘 나의 평범한 일상,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은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

-실업, 환경, 여성의 가정활동

◆바바라 에런라이크(Barbara Ehrenreich)

-'워킹 푸어'들은 우리사회에서 없어서 든 안될 박애주의자들이라고 정의.

-워킹푸어의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익명의 기부자가 된다는 것으로 '주고 또 주는 기부자이다'

◆르네 지라르(René Girard): 희생양을 부단히 찾아내고 그 희생양에게 모든 갈등을 집중시켜 공동체 내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사회적 장치"

-르네 지라르의 주장에 주목하는 부분은 조직과 국가와 사회가 희생제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야만적 행위와 결탁하고 있다는 사실

-기득권 계급 또는 주류 계급이 자신들의 권위주의 체제나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희생자들에게 보상보다는 폭력으로 희생의 불만을 무마

2. 상호주의 다양한 논의들

- ◆ 조직의 유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음(예: 양보, 헌신)
- ◆ 양보는 포기함을 전제-이 행동에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호주의가 숨어 있음.
 - 희생을 즉시적, 교환적, 일대일의 상호주의가 아닌 장기적, 관계적, 포괄적 상호주의로 보아야 하는 이유
- ◆ 상호주의는 서로 간의 부채에 대한 도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환의 관계
 - 마음의 부채, 원죄 외에 증여
- ◆ 증여하는 행위는 증여자과 수증자 사이에 연대와 우위 관계라는 이중적인 관계를 만듦
- ◆ 유물이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의 형식의 증여는 또 하나의 의무, 즉 부채.
- ◆ 누군가가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부채를 탕감하고 그것이 자신의 조직, 사회 영속성에 기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이득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 그것이 증여이자 선물

3. 증여론과 기본소득

가. 증여, 선물 그리고 부채

- ◆ 모스의 증여에는 주고, 받기, 되갚기라는 세 가지 의무와 네 번째 의무인 신에 대한 선물, 즉 공희제도(供犧制度)로 사람들 사이의 계약 교환과 인간과 신 사이의 계약 교환의 관계
 - 증여에는 물물교환의 성격이 아니라 신용 관념
- ◆ 마샬 살린즈(Marshall Sahlins) 모스와 홉스 모두 사회가 전쟁 대신 이성을 선택한다고 보았으며 홉스는 합리적 동기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모스는 군사 경쟁보다 경제적 동맹을 선택
 - 모스에게 이성은 곧 선물이며 전쟁의 어리석음 대신 인간적 합리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결국 홉스와 모스 이 둘의 공통점은 상호주의를 보장하기 위함
- ◆ 증여론의 상호주의 'reciprocity' 개념이 아닌 'prestation' 용어를 사용
 - 이익적이고 교환적인 reciprocity 상호주의 개념보다는 즉자적이 않고 무상적이며 장기적 부채의 상환 개념인 prestation을 사용: 언젠가 해야 할 하나의 약속

3. 증여론과 기본소득

나. 지위 인정을 위한 증여 경쟁

- ◆ 모스는 포틀래치의 증여론에서 답례받기 원하지 않아 자신의 모든 부를 파괴하는 행위.
- ◆ 신에게 중요한 물건을 태워버림으로써 상대방을 꺾소리 못하게 압도하여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는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후함(générosité)행위 경쟁
 - 포틀래치의 본질은 주어야 하는 책무(obligation)
- ◆ 재산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때만 자기 부족과 마을, 즉 자기 가족에 대해 권위를 유지하고 추장들 사이에서 그의 지위를 지속시킬 수 있음.
- ◆ 관대함이야말로 사회라는 체제를 영속시킬 수 있는 힘이기에 추장을 비롯한 위세가 높은 집단은 대항과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재산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와 위계를 획득
 - "손이 크다". "많이 먹어야 하지"

3. 증여론과 기본소득

다. 네 번째 의무 연대와 우위의 관계

◆ **고들리에**(Maurice Godelier)는 네 번째 의무를 인간을 지배하는 분신으로 영혼, 정령, 생명의 원천(돈, 종교, 법 등)으로 규정하여 인간이 신, 자연의 정령, 사자의 정령에게 진 부채가 계급 관계의 출발점이며 신에 대한 공희제도는 카스트 제도와 계급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상적 구조라고 말함.

-증여를 통한 연대는 증여자 자신의 지위를 수증자와 나눌 때 발생하지만 증여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수증자는 답례하기까지 증여자에게 진 빚을 갚기 전까지 종속되는 우위의 관계가 발생

◆ **에나프**는 (Marcel Hénaff)는 희생제의를 일종의 부채라는 관념으로서 신의 은혜가 확고한 우위에 있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인간이 신의 증여에 보답을 할 수 없다면 유일한 대안은 일을 열심히 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나 호모 라보란스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

3. 증여론과 기본소득

◆ **니체는 부채는 신이란 매개물을 가지고 인간을 한 없이 나약하고 스스로 하찮은 인간임을 확인하게 만드는 한 마디로 보잘 것 없는 인간임을 가스라이팅 하는 장치로 인식**

-부채 의식에 자리잡은 양심의 가책은 마침내 빛을 상환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죄도 보상할 수 없어 속죄가 불가능하다는 사상을 싹트게 함.

-오늘날 노동의 윤리, 직업 윤리 등

◆ **양심의 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종교, 정치, 국가, 제도와 같은 장치**

-푸코가 사람들의 생명관리를 가족, 군대, 학교, 결혼, 출산, 인종, 건강관리 등이 한 주권자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신성화, 직업 및 노동 윤리, 문화와 규범, 법과 제도를 통해 알게 모르게 통제하는 것과 같음

◆ **자신의 탓, 노력 부족 등으로 개인화**

◆ 신에 대한 부채에 근거한 양심의 가책은 강자의 덕을 지배하기 위한 약자의 꼼수에 불과

4. 희생제의를의 재해석

가. 희생제의와 폭력

◆ 르네 지라르는 그의 저서 『폭력과 성스러움(la violence et le sacré)』 첫 문장이 “희생은 때로는 아주 무시하지 않는 한 느껴지기 마련인 <아주 성스러운 것>으로 때로는 아주 심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는 저지를 수 없는 일종의 <죄악>으로, 이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로 시작

- 희생물은 성스럽기 때문에 희생물을 죽이는 것은 죄악

◆ 희생제의가 없애려는 것은 가까운 사이 끼리의 분쟁, 경쟁상태, 질투심과 언쟁이며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의 조화이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일치

-폭력을 멈출 장치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사법제도와 희생제의.

- 만일 사법제도와 같은 규범이 신뢰를 잃어 버리면 상호 복수는 다시 시작 . 한 마디로 각자 도생의 길에서 개인간 집단간 혈투 벌어짐

4. 희생제의의 재해석

나. 과거, 현재 희생제의의 형태

- ◆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성스러운 질서(사회체제)를 유지하던 금기(법, 규범)가 무너지면 상호 복수와 같은 공격적 폭력(아노미, 혼돈, 각자도생, 사적 복수)이 등장하고 이는 사회적으로 전염되어 기존의 공동체를 구성하였던 종교, 문화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제거해 버리게 되며 폭력은 더욱 증폭
- ◆ 희생물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악-누구라도 희생자가 될 수 있음
- ◆ 희생양은 저주 받은 존재(악의 화신)이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존재
- ◆ 희생양은 성스러운 존재이며 저주받은 존재이자 구원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
- ◆ 어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나머지 몫을 보존하는 것이 언제나 희생제의의 역할
- ◆ 희생제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폭력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한하는 것이며 공동의 사물을 통합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염려에 종속

#무정부

책임	1
탄핵	2
참사	3
이태원	4
전쟁	5

#각자도생

살인
책임
참사
이태원
전쟁

조사기관: 코난테크놀로지
 조사기간: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조사방법: 펄스케이 자연어 처리 기술 기반 텍스트 마이닝
 조사대상: 국내 이용자 수 기준 상위 30개 인터넷 커뮤니티·유튜브·네이버·다음 뉴스 원문 및 댓글 /
 블로그·카페·트위터·페이스북 일부 원문

4. 희생제의의 재해석

다. 경제사회적 관점의 희생제의 해석

- ◆ 희생(성스러움)은 일종의 선물과 증여로, 최악은 부채의 개념
 - 사회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성스러움의 희생을 동반한다면 희생에 부채(빚)을 지고 있는 것
- ◆ 콩트는 사회의 무제한적인 의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추후 '사회적 부채'라는 개념으로 전환
- ◆ 존 스튜어트 밀은 누군가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는 불완전한 상태라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희생 행위가 인간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근대산업의 모든 운동형태는 노동인구의 일부분을 끊임없이 실업자 또는 반실업자로 전환시키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
- ◆ 멜서스는 경제학은 상대적으로 과잉 노동인구의 끊임없는 생산을 자본주의적 축적의 필요조건이라고 선언

4. 희생제의의 재해석

다. 경제사회적 관점의 희생제의 해석

- ◆ 자본가의 몫의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억제하고 산업 예비군을 창출할 유인이 존재
 - 자본주의는 자신의 축적 방식을 위해 산업 예비군이라는 희생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본주의를 유지
- ◆ 희생물이 된 실업자는 좋은 일자리라는 대상을 서로 욕망
 - 누군가가 죽어야 해결되는 과정에 서로가 서 있게 되는데 이를 지라르는 짝패라 함
 - 동네에 만연한 자영업의 천국 음식, 식당, 카페 사장은 짝패의 전형
- ◆ 귀족과 엘리트 계급은 이처럼 자신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 희생대체를 지속적으로 찾아 헤매면서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견고한 옹벽을 쌓음.
- ◆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물에 대한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희생물이 희생이 아닌 것을 부각
 - 첫 번째가 능력주의(meritocracy) , 두 번째가 숙련지향적 기술편향, 세번째는 선택의 자유

4. 희생제의를 재해석

라. 자연상태와 희생제의

- ◆ 만일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면 이는 다른 누군가를 살아남기 위한 상호(호혜)주의라고 보아도 무방.
 - 따라서 이들의 희생에 대한 응분의 대가 또는 극진한 대접이 필요
 -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전쟁을 치르는 자연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 선물을 정치적 교환의 형태로 본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모스의 '총체적 급부'를 총체적 계약으로 정의하는 이유
- ◆ **니체**: 정의를 위한 귀족계급의 선물은 윤리적 책임이 아니라 비록 기만적이고 위선적일지라도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주장
- ◆ **고들리에** 또한 모스의 신에 대한 희생제의는 종교적 의례가 보통 사람들 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권력의 모델로 사용되어왔으며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대신하여 의례와 희생제의를 수행해 신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였다고 해석

4. 희생제의의 재해석

모스가 증여론 마지막 결론 부분

- ◆ 주는 기쁨, 후하고 풍류가 있는 지출의 즐거움, 환대와 사적 공적인 축제의 즐거움은 사회보험, 상호부조 조직, 협동조합, 지역 내 공제조합이라는 법인에서의 배려는 귀족인 소작인에게 보장한 보증보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가져다주는 빈곤보다 더 낫다”
- ◆ 모스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국가 자체는 고용주와 함께 노동자의 협력을 얻어서 노동자의 실업, 질병, 노령화 및 사망에 대한 일정한 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함을 지적
- ◆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Leviathan)』에 나오는 자연법 1조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고 있는 이유
- ◆ 홉스는 전쟁상태의 종료는 (경쟁에서) 특정한 인간의 승리나 만인의 복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호양보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해석. 자연법 2조부터 5조까지가 화해의 원칙, 즉 호혜성에 근거한 것이며 이 호혜성을 실현하는 것이 선물

5. 새로운 상호주의, 신뢰

- ◆ 자유주의 시대에 경쟁은 공존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에 따라 홉스의 자연 상태가 현실을 가장 잘 설명
- ◆ 보호와 복종의 국가와 국민간 새로운 사회계약 대두
 - 보호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아니라 계층과 계급의 상호인정을 통한 상호의존
 - 복종은 종속이 아닌 상호 계급과 계층간 맺은 사회계약에 복종을 의미
- ◆ 신자유주의는 봉건주의 성격만 달리 한 채 계급과 신분사회가 확고해진 상황에서 계급간 상호의 영역을 상호 인정하지 않고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 즉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일부분을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국가의 조직은 다시 신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

5. 결론: 새로운 상호주의, 신뢰

- ◆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하고, 가진 것을 내놓지 않고 지키기 위한 것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대한 부채를 되갚지 않는 즉 보은하지 않는 행위가 되며 이는 다시 전쟁이 난무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 것임
- ◆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스가 증여론에서 말한 기득권자의 고귀한 지출을 늘리고, 이 고귀한 지출은 기득권, 국가, 사회 체제 유지를 위해 희생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금으로 사용
- ◆ 기본소득이 희생자의 상호주의에 대한 보상